

마데테스



표어 : 믿음이 기쁨되고 용서가 감사되는 교회

은석교회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한 채 살아가는 내
자신을 발견하기를
힘씁니다.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영혼의
길에서 기억하기를
느낍니다.



예배를 통하여 신자의
삶이 말씀의 길으로
들어 가야 함을 깨웁니다.

사랑은 천천히 알게 된다

신 윤 식

거울을 바라보니 한 사람이 보인다.
입술에 침도 바르지 않은 채 거짓을 말하고
낮선 길 타박타박 발걸음 내딛던 날들
어느새 죄는 더욱 짙은 색으로 드러나고
마분지처럼 두꺼운 얼굴이다.
이 얼굴로 어제를 살았고 오늘을 살았으니
내일 또 하루를 어찌 살아야 하나

후회로부터 자유로운 나이는 없으니
어리석음에 몸서리치고
실패와 절망에 헛구역질하니
낡은 잡지처럼 너덜너덜한 삶에
수없이 죽고 또 죽는가 보다

나이 쉰 중반을 살아오면서
육신이 부평초처럼 뒹뒹 떠다닐 때가 있었고
강 속에 풍덩 빠지고 싶은 순간도 있었다.
사소한 것에 목숨 걸기도 했고
미운 놈 뽀이라도 후려치고 싶을 때도 있었다.

하지만 참고 또 참은 건
마지막 사랑 바라보기 때문일까

아름거리는 추억은 붉은 노을로 타오르니
청춘은 스러지고 뜨겁던 가슴 식을 나이
비로소 소중한 게 무엇인가 생각해 본다.

어쩌랴! 하늘의 그 사랑은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알게 되는 것을

대한예수교장로회

은석교회

교회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113-8
홈페이지 : <http://www.onlycross.net>
☎ (교회) 421-9049 (사택) 425-9049 (핸드폰) 019-832-9049
(E-메일) sys5806@hanmail.net

발행인 신윤식 목사
발행일 2011.5.8
발행호수 제19권 19호

본 문의 비유는
“천국은 마치”

라고 시작하는 것을 보면 천국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한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천국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었던 천국관이 잘못된 것

임을 드러내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절에서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본문의 혼인잔치 비유는 21장에 말씀하신 비유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21장에는 이미 살펴 본 대로 두 아들 비유와 포도원의 악한 농부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들은 예수님에게 권위에 대한 문제를 따지는 유대 지도자들의 악함을 드러내고 책망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농부의 비유를 들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비유가 자신들을 가리켜 하는 것인 줄 알고 예수님을 잡으려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율법을 지키고 실천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것이 율법에 대한 유대인의 중심사상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실천하는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하고 의로운 백성이며 따라서 천국도 당연히 자신들에게만 해당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아버지의 말에 “알았다”며 겉으로는 순종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거부하는 만아들이며, 오히려 율법을 어기며 죄를 범하고 살아감으로써 저주의 자식으로 여겼던 세리와 창녀들이 처음에는 아버지의 말을 거부하지만 돌이켜 회개하고 순종하는 둘째 아들이며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천국관을 기준으로 생각하자면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인의 사고와 원칙을 뒤엎는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리와 창녀는 죄밖에 없는 더러운

주일오전설교
마 22:1-14

혼인잔치 비유

존재입니다. 그러한 그들이 천국에 간다는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데 대제사장과 장로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적으로 의롭고 신실한 지도자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씀은 그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포도원의 악한 농부 비유에서는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세로 주고 타국으로 떠난 주인이 열매를 받고자 할 때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내 놓기보다는 오히려 종을 죽이고 나중에는 아들까지 죽여 버린 악한 농부가 곧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며,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쓸모없는 돌로 여겨 버려 버린 건축자와 같으며 결국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들 스스로가 걸려 넘어져서 깨어지고 깔려서 먼지처럼 흩어지고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비유들은 자신들을 당연히 천국 백성으로 여겼던 유대 지도자들의 생각을 뒤 엽니다. 이런 점에서 본문의 비유가 이 두 비유와 계속 연결된 내용임을 생각해 보면 천국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유대 지도자들의 잘못된 천국관을 드러내고 어떤 사고방식이 천국에 합당하지 않는가를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은 본문의 비유가 흔히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전도를 의미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9,10절)는 구절을 신자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교회에 가득 채워야 한다는 뜻으로 왜곡하여 말하지만 그러한 말들은 성경 구절을 이용하여 교회를 향한 자기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뜻과 의도에는 관심이 없이 오직 자신의 욕망과 자기 의도에만 충실한 전형적인 종교인의 말일 뿐입니다.

본문의 비유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 잔치를 베풀고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고 하였는데 오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감히 임금의 초청을 누가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임금에게 초청 받은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만사를 제쳐두고 초청에 응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임금에 다른 종들을 보내어 잔치에 오라고 하였을 때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임금의 종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자신에게 해를 끼친 것이 아니라 잔치에 오라고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종을 죽이고 모욕했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은 당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천국관을 드러내고 책망하기 위한 설명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 말씀을 대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이 비유를 보면 먼저 임금에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임금의 아들을 위한 혼인 잔치에 미리 청첩장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이들은 어떤 조건과 자격을 갖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시고 언약을 세우시고 성전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이 모든 것이 임금에게 청함을 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청함을 받은 상태였을 뿐 온전한 혼인 잔치는 아니었습니다. 즉 아들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언약이나 그들을 택하여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나 성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온전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언약이나 성전에서의 은혜는 아들이 옴으로 인해서 온전히 누리게 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임금 아들의 혼인잔치에 가기를 싫어합니다. 각자 핑계를 대고 자기 불일을 보기 바쁘고 나중에는 종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 정도로 그들은 아들의 혼인잔치에 무관심했고 싫어했습니다. 오직 자기 일이 중요했고 자기 일에 바빴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왕의 초청을 거절 할 수가 있는가?” 라는 의문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대로 우리의 상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시 청함을 받은 사람에 해당되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알아 가는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임금의 초청을 거절하고 종까지 죽였다는 것은 임금을 철저히 무시했음을 뜻합니다. 임금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임금의 권세에 순종하기보다는 오직 자기를 위해 살았고 자기 길을 갔을 뿐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임금에게 청함을 받은 특별한 존재로 여겼을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자신들을 청해진 임금의 은혜를 생각했었다면 임금의 백성으로써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임금의 다스림으로 인해 주어진 복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일에 중요성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임금의 청함에 순종하는 것에 중요성을 두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청함을 받은 유대인들은 것처럼 임금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며 임금의 권세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임금의 권세와 은혜를 무시하고 임금을 두려워하지 않은 채 그 청함까지 거부하고 싫어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섬기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 경외하며 마지막 때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믿고 있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 권위에 굴복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아들의 혼인잔치를 내 일보다는 덜 중요하고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면서 내 일에 충실한 채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얻는 기쁨보다는 세상에서의 내 일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을 더 누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현실을 이 비유에서 엿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른다고 합니다(7절). 임금의 분노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임금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노하신다면 그것은 부당한 것일까요? 당연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당연한 것은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입니다.

임금은 다시 종들에게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라” (9절)고 지시하고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고 그는

결국 잔치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예복에 관심을 두면서 예복이 무엇인지를 그 예복을 입어야 한다는 말을 하지만 제 생각은 예복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두는 것은 예수님의 뜻을 헤아리는데 오히려 방해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아 쫓겨났으니 우리는 예복을 입은 자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자'는 것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의도와는 전혀 상반없는 말일 뿐입니다.

14절을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는 말씀으로 비유를 끝냅니다. 결국 천국은 청함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택함을 받은 자들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청함을 받았으니 자신의 일까지 버려둔 채 임금의 부름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청함을 받았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잔치 자리에 앉았다고 해도 예복을 입지 않으면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오직 택함으로만 들어간다는 것이 비유의 핵심인 것입니다.

택함으로만 들어간다는 말씀 앞에 인간의 의나 행함은 무력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택함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택함 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음을 생각한다면 택함은 인간의 모든 의와 행함을 내려놓게 하고 나같은 자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마음을 두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택함 받은 자의 참된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천국 백성임을 당연히 했습니다. 제사장과 장로와 같은 지도자들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습니다. 자기 의로 뽕뽕 뽕뽕을 뿐 하나님의 은혜가 현재의 자신을 있게 했음에 대해서는 무시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권세를 무시하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며 오직 자기의 일에 매어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과연 천국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복종하고자 하는 뜻도 없이 다만 내 일에 매어 사는 우리 현실을 들여다보십시오. 이런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임금이 청하고 그 청함에 순종하여 들어가는 천국이 아니라 임금의 택함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할 뿐입니다.

본 문은 스테반 집사님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내용입니다. 스테반은 예루살렘 교회가 세운 일곱 집사 가운데 한 분이지만 행 6:8절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라고 말한 것을

보면 시도 못지않게 왕성한 활동을 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스테반이 반대파에 의해서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거짓 증언으로 고소를 당하고 당시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와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스테반이 성전과 율법을 반대한다는 증언에 대해 반론하는 것이 7장의 내용입니다.

스테반의 반론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과거에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인 것처럼 선지자들이 오시리라고 예언한 예수를 당신들이 죽였다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마지막으로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는 말로 끝납니다.

스테반의 반론으로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이를 갈 정도로 분노하게 되고, 그때 스테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56절)고 하자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던 공회원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스테반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이 내용에서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스테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는 내용에 대해서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성경이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으로 증거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직접 보았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권세와 영광의 자리에 계심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실제 목격할

주일오후설교

행 7:54-60

성령의 사람

(성령16강 4.24일 설교)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스테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심을 보았다고 증거하느니 만큼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스테반 한 개인의 환상 또는 경험으로 끝날 수 있고, 아니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보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누구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을 실제로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식으로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 것을 실제로 목격한 것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스테반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노라' 고 말합니다. 이것도 스테반이 실제 목격한 것이라면 과연 하늘이 어떤 식으로 열리겠습니까? 우리가 보는 하늘은 그냥 허공입니다. 허공인 하늘이 닫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이 열린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는 장면입니다.

물론 이 내용을 스테반의 체험으로 여기고 적당히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본문은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이 한 개인의 체험을 소개하는 것으로 끝날 뿐입니다. 스테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이 열린 것을 봤다면 성령이 임한 성령의 사람들도 스테반과 동일한 체험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스테반이 누린 은총의 세계를 우리도 알고 그 세계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본문에서 말한 하늘은 우리가 말하는 하늘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늘은 우주 공간입니다. 하지만 스테반이 열리는 것을 본 하늘은 우주 공간을 의미하는 하늘이 아닙니다.

하늘이 의미하는 것은 생명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 세상, 즉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땅에 속하지 아니했고 땅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로 하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늘의 생명입니다.

땅이 품고 있는 것은 죽음이고 저주와 심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땅에 속한 자로 태어납니다. 하지만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죽음도 심판도 없는 생명의 나라입니다. 이러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봤다는 것은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 그 마음이 하늘의 생명의 세계로 가득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하늘의 생명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돌에 맞으면서도 마음은 편한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스테반에게는 하늘이 열린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는 닫혔음을 뜻합니다. 즉 세상의 방식으로 머물지 않고 하늘의 방식으로 세상에 머무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죽음으로 모든 끝납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지 않기 위해 삽니다. 가능하면 힘 닿는대로 세상에서의 삶을 연장시켜 보려고 합니다. 세상에서의 인생 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 집착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이 열린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신자는 이미 하늘의 생명을 본 사람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통로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집착하지도 않고 생명의 나라에 속했다는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가장 존귀한 것을 얻었기 때문에 세상 것이 있고 없고에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하늘의 생명과 은총으로 이미 채워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늘이 열린 것을 본 성령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편에 서 계심을 보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편에 서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다스리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신자가 자기 인생을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인생으로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자신의 존재 이유로 믿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본다는 것은 곧 믿음을 의미합니다. 봤기에 믿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고 본 것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을 보게 되는 것이고,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본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것에 대한 믿음은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스테반에게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인 신자가 하늘을 본다면 자기 인생에 불
안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자의 인생은 예
수님께 붙들려 인도 받고 있으며 신자는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뢰한
다면 예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에 대해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자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신자에게 하늘이 열려 있다는 것은 하늘을 내가 돌아
갈 본향으로 바라봄을 뜻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세상에
서는 나그네로 살게 됩니다. 언젠가는 떠날 것이기에
세상의 것을 오히려 무겁게 여깁니다. 육신의 삶을 위
해 곁에 두고 있는 것일 뿐이지, 언젠가는 다 버리고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이 신자에게 자유를 가능하게 합니다. 보이
는 것에 매이지 않고 하늘의 생명을 바라보고 소망하기
때문에 하늘 생명이 주어진 것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신자는 땅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에 소
속된 자로 세상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
람입니다. 성령이 오심으로써 우리를 하늘과 열린 관계
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심령은 하늘의
생명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땅을 위해 사는 것이 현재에는 지혜롭게 보여도 마지
막의 자리에서 생각하면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세상
이 걸어가는 어리석음의 길에 함께 하지 말고 생명의
나라인 하늘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돌아갈 본향을 사모
하면서 나그네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하늘이 열린 성
령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생명을 위해 하나님
이 행하시는 일들
은 참으로 기이합니다. 기
이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
리의 상식과 사고를 뛰어
넘어서 우리가 도무지 생각
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방식으로 생명의 일을 이루
시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은혜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수요일설교
속 8:14-23

**은혜 받은
자의 삶**
(10장 4.20일 설교)

것이 유대였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베풀의 결과
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인
간의 상식과 이치대로라면 그들은 바벨론에서 더 고통
을 당해야 합니다.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
아올 때까지 고생을 겪으면서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
래야 돌아올 자격이 있다는 것이 우리 생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달라지지도 않은 유다를 돌아
오게 합니다. 왜 그들이 변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실
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로 고
통을 겪고 그로 인해서 변하여 구원을 받는 방식으로는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서 인간은 어떤 방식으로든 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변한다고 해봐야 기껏 삶의 방식이나 행동입
니다. 하지만 이것은 변화가 아닙니다. 인간의 악한 본
질, 즉 죄성은 불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도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구원에 해당
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
다. 이 같은 하나님에 대해 기이하게 여기는 놀라움이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님
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은혜를 당연한 것
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자신을 은혜 받을 만한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자기를 바라본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에게 대한 차별로 나타날 것
입니다.

은혜를 안다면 자신에게 있는 것을 자기의 수고와 노
력의 결과로 여기지 않습니다. 14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격노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으로 멸망을 받고 이방 나라에
포로가 되어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뉘우치
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으며 여전히 자신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
를 베풀어 돌아오게 하시고 본성의 복을 누리게 하시겠
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
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베풀어지고 그들은 은혜
로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물입니다. 그러므로 유
다가 은혜를 안다면 그들에게 주어진 것을 힘으로 삼지

않을 것이고 가지지 못한 자를 약자라 하여 무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다.

16,17절을 보면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고 말합니다.

너희가 행할 일이라는 것은 은혜를 받은 자가 행할 일을 말합니다. 은혜 받은 자가 행할 일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증거하는 것이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지자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고,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푸는 것이고,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않고,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흔히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행할 것은 은혜를 받은 만큼 내어 놓고 베푸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선지자는 은혜 받은 자가 행할 일을 이웃과의 관계에서 말합니다.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한다는 것은 이웃과 함께 진리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웃을 함께 진리를 나누고 진리의 길로 걸어갈 형제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신자가 진리 안에서 함께 한다는 것이 세상에서의 차별의 기준이 모두 허물어진 관계에서 함께 함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돈이 벽이 되어서 함께 진리를 나누지 못한다면 그것은 형제로 대하지 않고 자기 소유를 기준으로 대하는 것이 됩니다.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푸는 것도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을 보지 않고 모든 이에게 진실한 재판을 행하는 것은 사람을 세상 기준으로 차별하지 않을 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단지 재판을 공정하게 하라는 윤리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사람에게 대한 차별 의식을 하나님이 미워하심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차별의식은 하나님 은혜의 은혜 됨을 알지 못하는 증거물이기 때문입니다.

19절에 보면 금식에 대해 말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생활에서 금식을 하면서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그들이 금식을 했다는 것은 바벨론 생활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지만 금식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고통의 세월이 끝나고 기쁨과 즐거움의 날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유다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만한 민족이 못됩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사랑하시고 복에 거하게 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전이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베풀어지는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성전을 두심으로써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그들을 긍휼과 자비의 증거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예뻐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새겨두심으로써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사랑을 증거하도록 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 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을 새겨두시고 그 사랑을 증거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아는 자는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면서 잘못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보다는 사랑 받을 수 없는 자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아는 삶으로 연결되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이웃을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 1:16,17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 받는 자를 도와 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고 말합니다.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학대 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해 신원하고 과부를 위해 변호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악한 행실, 행악으로 여기시는 것은 악자를 학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악자를 학대하는 것보다 더 악한 행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악자를 학대하는 것을 악한 행실과 행악으로 말하는 것은 악자를 학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은 그 크신 은혜를 증거할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존재 이유입니다.

■ 오전예배 ■

11시 / 인도 신윤식 목사

묵상기도 : 다 함 께

신앙고백 : 다 함 께

찬 송 : 14장

교 독 : 87(계21장)

기 도 : 조규현 장로

찬 송 : 453장

성 경 : 마 22:1-14

말 씬 : 혼인잔치 비유(136강)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295장

교회소식 : 이영민 장로

찬 송 : 1장

축 도 : 설 교 자

■ 오후예배 ■

2시 20분 / 인도 신윤식 목사

신앙고백 : 다 함 께

찬 송 : 298장

기 도 : 조순자 집사

찬 송 : 454장

성 경 : 막 10:46-52

말 씬 : 들음에서 봄으로(성령 18강)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453장

주기도문 : 다 함 께

■ 수요일예배 ■

7시 30분 / 인도 신윤식 목사

스가랴 강해(13강)

■ 교회소식 ■

1. 예배당의 피아노가 오래되어 반주에 지장이 있어서 제직회에서 피아노 교체를 위해 6월 말까지 현금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현금된 액수대로 신품 또는 중고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2. 등록 - 양효정(010-3322-8286 3구역)
(국우동 현대아파트 104동 205호)



다음주 기도

오전 - 이영민 장로 오후 - 최두임 집사

교회의 교회됨을 위하여③

사람들은 교회됨을 말하면서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교회를 상상한다. 그리고 그 모델로 초대교회를 언급한다. 행 2:44-47절에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는 내용을 교회됨의 모델로 삼아 이 내용을 실천하여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되돌아감으로써 교회됨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 신자는 모이기를 힘써야 하고 성찬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의 관계를 회복하여 서로 사랑해야 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을 수 있도록 구제와 같은 선한 일을 행하는 데에도 부지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도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에게 나눠주어야 한다는 말은 차마 하지 못할 것이다. 스스로도 그 말대로 실천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현대 교회가 실천할 수 없는 천국에서나 가능한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기준으로 우리 앞에 세워져 있는 것인가? 지상의 교회는 과거 초대교회를 모델로 삼아 끊임 없이 교회됨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교회 됨을 모범적인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교회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없다.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완성되는 것이라면 교회가 아니라 단지 인간단체일 뿐이다. 인간이 행하는 도덕과 윤리 그리고 종교적 행위로 인해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는 교회됨은 인간이 주체가 된 종교 모임으로서의 교회일 뿐 성령이 주체가 되어 발생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고는 할 수 없다.

고전 3: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한다. 신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령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이 개입할 수 없는 성전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이 성전은 인간의 지혜나 노력과 수고에 의해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수고와 열심에 의해서 지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와 수고와 열심은 세상에 거룩한 자가 있게 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거룩한 자는 누구인가?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입은 자다. 이 거룩에 인간은 개입할 수 없다. 인간이 제아무리 수준 높은 도덕과 윤리를 실천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거룩한 자라는 일컬음을 받을 수 없다. 이것이 교회됨과 인간의 실천은 무관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